

# 경교장 역사 강좌 <1>

- 일 시 : 2013년 3월 16일(토) 14:00~17:00
- 장 소 : 경교장 (2층 임시정부 요인 숙소)
- 강연내용
  - 김정동, 우리 현대사의 큰 그릇, 경교장(京橋莊)
  - 한시준, 경교장 복원이 갖는 의의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목 차

## 1. 우리 현대사의 큰 그릇, 경교장(京橋莊)

----- P.3 ~ P.13

## 2. 경교장 복원이 갖는 의의

----- P.14 ~ P.18

# 우리 현대사의 큰 그릇, 경교장(京橋莊)

김정동(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1. 건축의 존재성

근대건축사 분야에서 해방 이후사는 해방 전사보다 다루기가 더 힘든 영역이다. 자료난도 문제이거나 건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친일문제, 남북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직후 우리 건축계도 좌우익 투쟁이 무척 격렬했다. 건축가는 물론이고 건축물도 그 상황에 놓였다. 연맹파와 연합파, 친일 청산, 좌우익 대립의 와중에 그 내용을 담은 건축물은 타도와 파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신사, 감옥, 언론사, 경찰서 등이 주 타깃이었다. 정치사적 견해차도 마찬가지였다.

우남(霧南)과 백범(白凡)의 병립도 마찬가지였다. 4·19 당시, 경교장에 이웃하는 이기붕 저택은 타도 1순위가 되었다. 친정부적 언론사도 마찬가지였다. 혁명의 와중에 건축물들은 불타고 사라져 버렸다. 다행히 경교장은 백범 김구(金九, 1876-1949)선생의 이미지가 겹쳐 헐리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현재 이 상태로나마 남아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을 어려운 과정 속에 고쳐 오늘 박물관 형태로 복원해 놓은 것이다.

## 2. 1936년 터 매입

경교장이 소재하는 터는 원래 한성부(漢城府) 자리였다. 물론 그 이전에는 경기감영<sup>1)</sup>이 있던 자리이다. 이곳은 이웃하는 경희궁과 함께 서울 서부지역의 중심적 장소였다. 신문로 평동(平洞) 중턱에 있다. 서울 도성 밖이었다. 이 터에 1896년 한성공립소학교가 개교되었다. 현 미동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908년 미근동 현, 미동초등학교로 신축 학교를 짓고 이사했다.

현재의 서대문 로터리 일대에 서대문우체국과 서대문경찰서<sup>2)</sup> 그리고 적십자병원이 있다. 이 일대에는 서대문과 경기감영이 있던 곳이다. 서대문은 태조가 축성할 때는 서전문(西箭門)이라 했다. 1422년 2월 세종 4년 개수 할 때에 경희궁 쪽에 옮겨 지으면 서 돈의문(敦義門)이라 했다. 따라서 돈의문은 서대문이라 하지 않고, 새문 즉, 신문

1) 경기감영을 그린 ‘경기감영도병’은 보물 1394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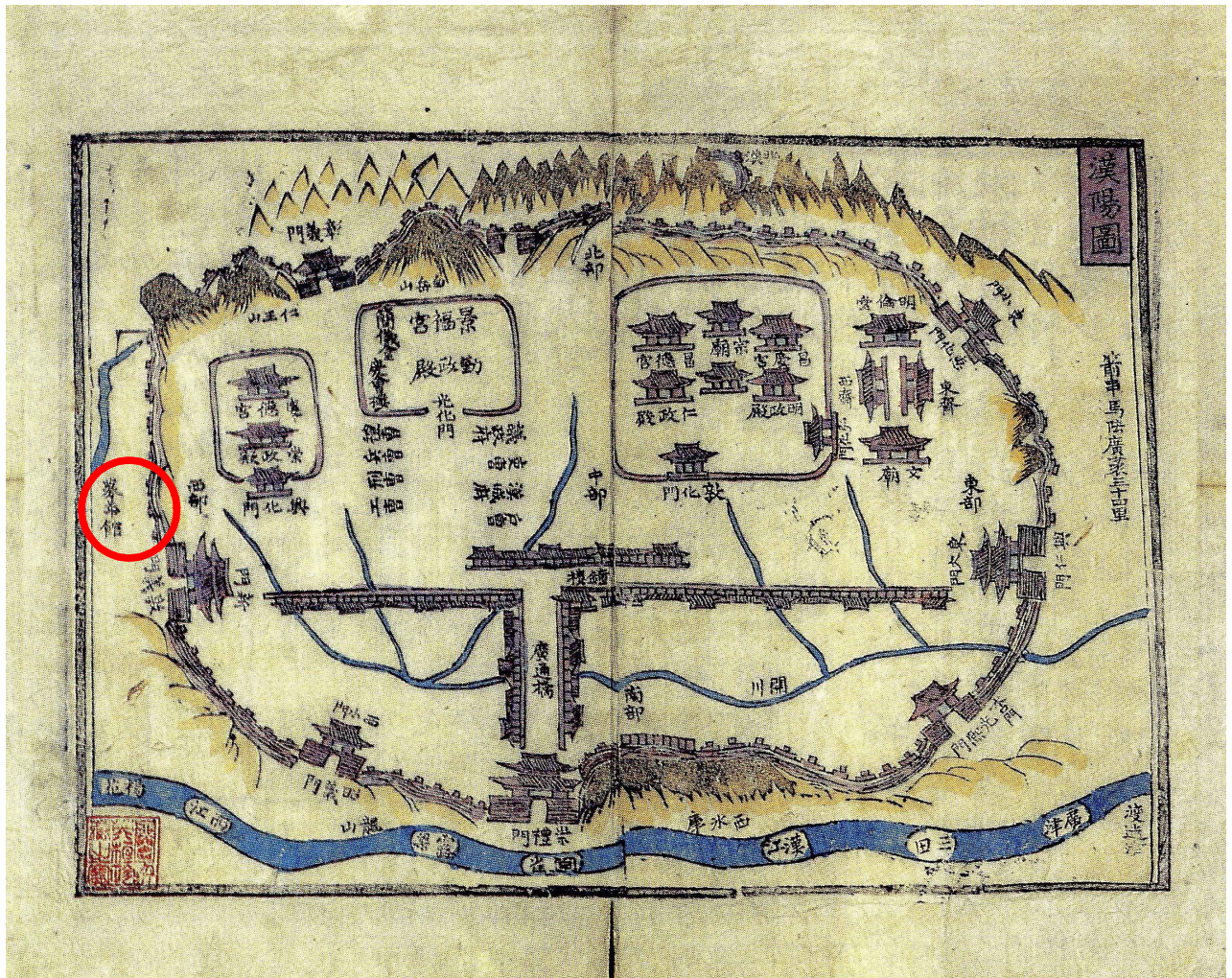
2)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미근동(漢芹洞) 165번지에 있었다. 1937년 지하 1층, 지상 2층, 8백 평 규모로 세워졌다. 1981년 7월 철거되었다. 철거공사는 이화공영이 했다.(동아일보, 1981.7.4) 일제 상징적 건물을 우리 스스로 헐어 낸 것이다.



(新門)이라 했다. 즉, 서전문은 구문, 돈의문은 신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서울 4대문 약칭 때문에 서대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서대문을 1915년 조선총독부가 헐어 버렸다. 헐린 서대문은 현 경교장 가까이 있었다.

경기감영 부근에 경교(京橋)가 있었다. 경고교(京庫橋), 경구교(京口橋)라고도 불렀다. 일명 ‘석다리’ 즉, 돌다리였다. 교북동(橋北洞) 파출소 부근이다. 이 경교가 유명했던 것은 중국 사신이 한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리에서 군악을 주악(奏樂)하였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당시 서울의 명물이었다.

경교장이란 이름은 경교, 즉 ‘경기감영 다리’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림-1; 한양도, 1822년, 새문(新門) 밖에 경교장이 들어선다.>





<그림-2; 왼쪽에 경교가 보인다.>

그 후 1936년 이 터는 평안북도 출신의 실업가 최창학(崔昌學, 1891-1959)에게 넘어갔다. 최창학은 이 터에 자신의 저택을 짓기로 한 것이다.

일제가 조선의 금을 채굴하기 시작한 것은 1926년부터이다. 조선총독부가 산금(産金)장려정책을 펼 것이다. 조선식산은행, 조선은행이 금 수집에 앞장섰다. 1931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열광시대(金熱狂時代) 즉, 골드러시 현상이 벌어졌다. 평북의 운산금광(雲山金鑛)은 대표적인 금광이었다. 운산금광은 1910년 이래 미국인의 금광이었다. 이후 프랑스, 영국인도 우리 금광에 뛰어 들었다. 일본인은 후발이었다.

우리 금광에 적극적인 조선인 사업가가 방응모(方應謨)<sup>3)</sup>와 최창학이었다. 최창학은 1923년부터 평북에 있는 삼성금광(三成金鑛)을 개발했다. 한국인으로는 5위에 해당하는 광산재벌이었다.<sup>4)</sup> 1938년에는 매일신보(每日新報) 상무취체역이 되었다. 당시 국내의 4대 부자는 민영희, 김성수, 박흥식 그리고 최창학이었다.<sup>5)</sup>

3) 방응모는 광산재벌 3위였다. 평북 삭주군(朔州郡)에 교동금광(橋洞金鑛)을 갖고 있었다. 1926년 교동금광을 열었고 그 성공의 결과로 교동의숙(橋洞義塾)도 만들었다. 생도 100여명에 교사 3명의 보통학교 급 학교였다.

4) 廣江澤次郎, 『한국시대의 로서아 활약사』, 조선공론사, 1932, 84-88쪽

### 3. 1938년 여름 저택 세워져

최창학 저택의 설계자는 김세연(金世演, 1897-1975)이었다. 1936년 설계가 이뤄졌다. 김세연은 경기도 광주(廣州) 출생으로 한국근대건축 1세대의 한 사람이다.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를 박길룡의 뒤를 이어 1920년 졸업했다. 조선총독부에 들어가 1941년 퇴직할 때까지 고원(雇員), 기수(技手), 기사(技師)를 거치며 한국인 최초의 구조계산 전문가 역할을 해냈다. 그는 1943년 박길룡 사후 그의 사무소를 이어받았다.<sup>6)</sup>



<그림-3-4; 건축가 김세연과 그의 작품사진집>

최창학 저택은 7,823m<sup>2</sup> 연면적 1,137m<sup>2</sup> 규모로 설계되었다. 이것이 공사 중 줄어들어 현재는 1,584평의 대지에 264평 규모가 되었다. 최창학은 당대에 가장 큰 양관저택을 갖게 된 것이다.

공사는 2년 걸려 1938년 여름 준공되었다. 이 건물은 단아(端雅)한 2층 양관으로 그 전면 분할의 비례가 특히 아름답다. 1층 좌우창을 원형으로 돌출시켰고 그 상부를 의장의 중심체로 하였다. 현관 2층부에는 6개의 불임 원주(圓柱)를 사용하여 5개의 들임(Recessed) 아치창을 냈다. 좌우는 완전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창은 전남도청 청사와 유사하게 처리되었다.

대형창으로 느끼게끔 띠를 둘러 1조(組)로 묶었다. 지붕면의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 대형 도머(Dormer) 창을 두었다. 지붕은 고기 비늘형 천연 슬레이트를 올렸는데 일본 미야기켄(宮城縣) 제품이였다.

화강석은 동대문 밖(창신동) 돌을 썼으며 대리석은 외국 수입품, 일제, 그리고 우리

5) 이경남, 「이화장과 경교장」, 《정경연구》, 1985.10, 398쪽

6) 《조선과 건축》(「최저(崔邸)신축공사개요」, 1938.8, 26-27쪽)은 설계, 시공자를 오바야시 구미(大林組)로 적고 있다.

나라 것을 섞어 사용했다. 내장 마감재로 베니어 제품도 사용했다. 온수 난방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림-5; 준공 무렵의 최창학 저택(경교장), 뒤편에 한옥이 보인다.  
(《조선과 건축》, 1938.8)>



<그림-6; 준공 무렵의 최창학 저택(경교장)(《조선과 건축》, 1938.8)>

내부는 현관, 응접실, 발코니, 당구실, 식당, 이발실, 서재, 욕실, 일광욕실(선룸) 길고 다다미형 침실을 갖췄다.

최창학은 이 양관 저택 외에 경내 양관 뒤편에 150평 규모의 거대한 한옥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 한옥 저택에서는 온돌 생활이 가능했다. 최창학은 이 저택을 지어 놓고도 일제시대에는 주로 한옥에서 생활했다. 외빈이 오면 양관을 사용하곤 했다. 당시 공사 시가로 하면 반도호텔 공사비의 반값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집 당호는 죽첨장(竹添莊)이었다. 당시 이 일대는 일본과 인연이 깊었다. 갑신정변 전후 일본의 주한 공사는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1841-1917)였다. 그는 아마쿠사 군(天草郡) 출신이다. 한의사의 집에서 태어나 한학을 배웠다. 한학자였던 그는 청나라를 드나들며 세상을 익혔다. 1880년부터 천진 영사, 북경공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청나라와 조선과 인연을 맺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과의 친교로 1882년 조선에 변리공사로 온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후에는 일본으로 도망가 1885년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되었다. 다케조에의 뒤를 이어 1895년 공사로 온 자가 미우라 고로우(三浦梧樓, 1846-1926)였다. 육군 소장 출신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자였다.

일제가 되며 이 일대가 개발되며 동네 이름에 그를 기념하여 다케조에마치(竹添町)란 이름을 붙였다. 친일파였던 최창학은 이 집의 당호에 주소(죽첨정 1정목 1번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동네 이름은 해방 후 충정로(忠正路)가 되었다. 당호는 경교장이 된 것이다.

#### 4. 처음 가려 한 곳은 덕수궁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수립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해방이 되자 1945년 11월 23일 임시국무위원들과 함께 상하이를 떠나 27년 만에 귀국했다. 미군정청 시대, C-47 미군 수송기는 황해를 건너 오후 3시경 미군 관할의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다.<sup>7)</sup> 김구 선생은 저녁 5시경 죽첨장(竹添莊, 경교장)에 도착했다.<sup>8)</sup> 이곳이 대한민국임시정부환국봉영회가 마련해 준 백범의 거처였다.

최창학은 김구 선생에게 이 집을 넘겼다. 임정귀국환영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친일행위를 뉘우치는 뜻에서 이기도 했다. 이후 임시정부의 공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원래 주위에서 덕수궁을 추천했으나 최창학의 저택으로 결정된 것이다.

최창학은 백범에게 이 집을 넘기면서,

7) 이승만은 김구 보다 먼저인 10월 16일 한국했다. 조선폰텔에 여장을 풀었다.

8) 다른 요인들은 시내 한미(韓美)호텔 등에 분산되었다.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산전수전 수고를 다하신 주석 선생님에게 이 누옥을 헌상합니다. 주석 선생님께서는 이 누옥을 재물이라 여기지 마시고 건국사업을 진행하시는 총본부로 활용해 주신다면 이를 데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고 했다고 한다. 백범은 이 호텔 같은 저택에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청사 같은 성격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그 의견을 받아 들었다.

당시 이승만은 성북구 돈암장(敦岩莊)에 거하고 있었다. 돈암장은 원래 광산업자 장진섭(張震燮)의 저택이었다.<sup>9)</sup> 이후 경교장과 돈암장 그리고 서대문과 동양극장, 조선폰텔은 우리 정치사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조선폰텔은 미 진주군 사령관 하지 중장의 숙소였다.

백범은 죽림장에서 환국 첫 밤을 잔 뒤 “내가 혼이 왔는지 유체(遺體)가 왔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며 감회를 표했다. 12월 3일 오후 3시 환국 후, 첫 국무회의가 이곳에서 이뤄졌다. 1946년 3월 1일에는 이곳에서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김구 선생이 입주한 이후 경교장(京橋莊)이라는 이름이 붙어 1946년 11월부터 49년 6월까지 우리 정치사의 한 현장이 되었다. 이승만과 김구의 정치적 대결 현장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이승만의 돈암장과 이화장(梨花莊), 김규식의 삼청장(三淸莊)과 함께 건국의 3대 요람지였다.

김구 선생은 1948년 4월 19일 평양행을 저지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눈을 피해 이곳 경교장 뒷담을 넘어 남북협상 길에 올랐던 일화가 있다. 당시 백범 비서였던 선우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400-500명 청년들이 경교장 뜰에 드러눕고 그랬죠.... 백범 선생은 베란다로 올라가서 청년들에게..., 호통을 치셨죠.... 경교장 지하실 식당(주방) 옆에 (석탄)보일러실이 있는데 뒷길로 나갈 수 있는 (뒷)문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빠져 나가 38선을 넘었습니다.”

고 말했다.<sup>10)</sup> 이번 복원에서는 이런 증언도 참고 사항이 되었다.

## 5. 1949년 6월 26일까지 3년 7개월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낮 12시 45분께 2층 거실 겸 집무실에서 당시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급서했다. 그는 일요일에는 평소 남대문교회에 나갔었다. 그런데 그 날은 교통편 때문에 경교장 2층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다. 평

9) 이승만은 돈암장에 1년 이상을 거한 후 집을 옮기게 되었다. 이후 가회동의 최승희, 윤치호 집이 후보에 올랐으나 여러 사정으로 이화장으로 옮겼다. 최승희는 월북한 여류 무용가였고, 윤치호는 윤씨 문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7년 여름 마포 강변에 있는 마포장으로 집을 옮겼다. 이 집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여름 별장이었다. 집의 이미지와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 다시 수소문한 것이 김상훈(金相訓)의 저택이었다. 1947년 11월에 입주했다.

10) 조선일보, 2005.8.12, 2009.6.16

소에 붓글씨를 쓰거나 바둑도 즐겼다고 한다.

선생은 그날 경교장 측은 5백 미터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연락 응급처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사후 그의 시신은 2층 다다미방 거실에 안치되었다가 1층 귀빈식당으로 옮겨 모셔졌다. 7월 5일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묻혔다.



<그림-7; 시신이 1층 귀빈식당에 안치되어 있다.>

그는 암살되기까지 3년 7개월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건국에 대한 활동 및 반탁, 통일운동을 이끌었다.

현재 캔틸레버 부분이 수리 변형되었고 뒷벽은 훼손되어 있다. 최근 신관과 구관을 잇는 원통형 통로가 건물을 가로막으며 신설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면부는 그런대로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김구 선생 사후 최창학 일가에게 반환된 이 건물은 여러 번 용도를 바꾼다. 한 때는 세들어 있던 미국인 라이에 의해 호텔로 전용되기도 했다. ‘게스트 하우스’란 이름으로 13개의 방을 미국인 선교사 가족 혹은 투숙객을 하루 7달러를 받고 숙박시키기도 했다. 이후 중화민국(자유중국) 초대 대사 관저(1949-50)로 상용되었다. 6.25 때는 의료진 주둔지였다. 9.28수복 후에는 미군 특수부대 주둔지가 되기도 했다. 휴전 후에는 월남대사관(1956-67)의 관저로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와 깊은 외교관계를 갖던 나라는 자유중국, 월남, 그리고 필리핀 정도였다. 그 중 두 나라의 공관으로 사용된 특이한 건축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교장은 광산 거부 최창학의 저택, 김구 선생의 경교장 그리고 외교 공관 등 세 가지 의미를 담은 우리 근현대사의 큰 그릇인 것이다.



<그림-8; 월남대사관 때의 사진(자료 김세연)>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사위가 1967년 이 건물을 사들여 김구가 최후를 맞은 거실을 보존한 상태로 <고려병원>(현, 강북 삼성의료원)의 회의실 및 환자 대기실로 사용했다. 1968년 일본에서 설계한 고려병원은 일본 건축 기술진에 의해 진행되었다. 10층 건물을 경교장에 붙여지었다. 좌측면과 후측면이 병원에 붙어 버린 것이다. 경교장은 병원 현관과 통로 역할로 전락했다. 경교장 내 김구 선생 집무실은 의료진 휴게실로, 임시정부 국무회의장은 약품 창고와 병원 원무과로 전용되었다.



<그림-9; 일본인의 설계로 병원이 지어 지고 있고 경교장은 병원의 진입로가 되었다.(준공 1968.11.2)>

1994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병원 측은 경교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7층짜리 병원을 세우려 했다. 1996년에는 다시 경교장을 철거, 이전하려 했다. 이전 예정지는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부근이었다. 병원 측은 기존 병원을 지상 17층 지하 8층 규모로 증축 해 1998년 준공시키려는 계획이었다.

한쪽에서는 김구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데 한 쪽에서는 건물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강북삼성병원>에서는 병원 증축공사를 위해 1996년 2월 서울시 당국에 철거 요청을 했으나, 시 측이 거부, 지금은 2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 백범기념관으로 활용하겠다'고 수정 제안했다.<sup>11)</sup>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은 1999년 4월 17일, 이 건물을 철거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4월 19일의 결정에서는 다행히 철거 이전 불가로 판정했다. 이즈음 다시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에서는 경교장을 서울 용산구 효창원 경내로 이전, 복원하는 안을 낸다.(조선일보, 1999.6.25)

문화재청은 2000년 봄에 들어서 근대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2000.5.23) 문화재청은 이후 근대역사기념물의 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를 조사,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우여곡절 끝에 2001년 4월 6일, 경교장을 서울시 유형 문화재 제 129호로 지정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다. 그러나 이후 강북삼성병원은 또다시 병원의 증축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1년 6월 15일, 종로구로부터 증축(신축)허가를 받았다.<sup>12)</sup>

서울시는 2004년 말 경교장 내 2층 집무실 중 일부(20.48평)를 가복원해 공개했다. 복원은 부분적으로 이뤄진 것이다.<sup>13)</sup> 경교장은 이후 2005년 6월 13일 사적 제 465호로 승격 지정되었다.<sup>14)</sup>

2008년 9월 22일 경교장의 부분적 복원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sup>15)</sup> 경교장 소유주

11) 윤성훈, 동아일보, 1996.4.18

12) 윤진, 한겨레, 2003.11.23

13) 경교장 내 백범 김구 집무실 원형 복원, 연합뉴스, 2004.10.4

14) <요약>

위 치: 종로구 평동(平洞) 108-1번지  
 착공년월일: 1936. 8  
 준공년월일: 1938. 7  
 설 계 자: 김세연(金世演)  
 시 공 자: 오바야시 구미(大林組) 경성지점  
 건축 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벽돌조  
 층 별: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1,584평  
 건축면적: 117평  
 연 면 적: 264.40평

보존 상태: 사적 제 465호로 지정(2005.6.13). 1968년 이후 강북삼성병원에서 사용 중



인 삼성생명이 서울시에 무상임대해 준 것이다. 원래 공사는 2011년 11월 마칠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늦어져 2013년 3월 1일 준공 오픈한 것이다.

경교장 전 경역으로 볼 때 이 번 것은 건물 일부의 복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옥의 복원도 필요하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 정원의 복원도 시급하다. 정부, 서울시청, 소유자의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15) 시행청; 서울시(역사문화재과) 김수정 팀장, 김서란 학예사, 복원설계; 대연건축사사무소(대표, 김철민), 복원공사; 삼부토건(홍성일 소장), 전시설계(이성원 소장), 전시시공 : 디엔지 예와가

# 경교장 복원이 갖는 의의

한시준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복원 완결

경교장이 서울시에 의해 옛 모습 그대로 되살아났다. 경교장은 흔히 ‘김구 주석의 숙소’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인 백범 김구가 해방 후 국내로 환국하여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알려진 것이다. 김구는 1945년 11월 23일 환국하여 경교장을 숙소로 사용하였고, 1949년 6월 26일 서거할 때까지 경교장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경교장이 김구의 숙소로 알려져 있지만, 경교장은 단순히 김구 주석의 숙소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였다.

경교장이 복원되면서 중국에 이어 국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가 모두 복원되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었고, 26년여 동안 중국대륙 각지에서 활동하다가 해방을 맞아 1945년 11월 23일 국내로 환국하였다. 이동안 임시정부는 중국의 상해를 비롯하여 항주(杭州)· 장사(長沙)· 광주(廣州)· 유주(柳州)· 기강(綦江)· 중경(重慶) 등지로 이전하면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가 중국 각지로 옮겨다니며 활동하던 청사가 모두 복원되었다. 이에 이어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할 때 청사로 사용하였던 경교장도 복원된 것이다.

중국에는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주요 도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구지’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진열관’ 등의 이름으로 임시정부 청사가 복원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이래, 1945년 해방을 맞아 국내로 환국할 때까지 26년여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이동안 임시정부는 중국대륙 여러 곳으로 옮겨다녔다. 상해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의거를 계기로 일제경찰의 탄압을 피해 항주로 이전하였고, 이후 중일간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의 점령지역을 피해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등지로 옮겨다니다가 1940년 중국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인 중경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1945년 중경에서 해방을 맞았다.

임시정부가 옮겨다니며 활동한 중국의 각 지역에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였다.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청사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던 곳도 모두 복원해 놓았다.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정식으로 청사를 마련한 경우는 두 번 뿐이다. 하나는 수립 당시 상해의 불란서조계 하비로(霞飛路)에 2층 양옥 집을 청사로 마련하였다. 이는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다. 2층 양옥집 옆에 태극기를 게

양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청사는 1919년 10월 불란서조계 당국에 의해 폐쇄조치를 당하였다. 이후에는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무는 곳이 청사였다. 현재 상해에 복원되어 있는 보경리(普慶里) 4호의 청사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던 집이었다. 그리고 상해를 떠나 중경에 정착할 때까지 항주·진강·장사·광주·유주·기강 등지로 이동해 다닐 때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거처가 곧 청사였다.

두 번째는 중경에서 활동할 때 정식으로 청사를 마련하였다. 1940년 중경에 정착하여 마련한 석판가(石版街)·양류가(楊柳街)의 청사는 일본군 비행기의 폭격으로 불타 버렸다. 이후 오사양향(吳師爺巷)에 임시정부와 의정원,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렀다. 그러다 중국정부에 요청하여 연화지(蓮花池)에 청사를 마련하였다. 이것이 임시정부가 마련한 청사였다. 임시정부는 1945년 1월 연화지 청사로 이전하였고, 그해 11월 환국할 때까지 사용하였다. 이는 1995년에 복원되었다.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사용한 청사 이외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렀던 곳도 복원하였다. 항주·장사·유주에 복원해 놓은 청사가 그것이다. 이들 청사는 임시정부가 일본군의 점령지역을 피해 이동해 다닐 때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처하였던 곳이다. 특히 항주·장사·유주에 복원해 놓은 청사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잠깐 머물렀던 곳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측에서 주도하여 복원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흥(嘉興)·해염(海鹽) 등 김구가 피난하였던 곳에도 ‘김구피난처’라고 하여 전시실을 마련하였다.

경교장도 마찬가지다. 임시정부가 국내로 환국하여 주석 김구가 머물렀던 곳이 경교장이고, 동시에 임시정부 요인들의 숙소로 사용된 곳이 경교장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여 국무회의를 개최한 곳도 바로 경교장이다. 이외에 임시정부에서 국회 역할을 하던 임시의정원(비상국민회의, 국민의회)은 창덕궁에,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역할하였던 한국독립당은 운현궁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국내로 환국한 후, 임시정부는 정부로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가 국내에 환국해서도 정부로 활동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1945년 11월 23일 주석 김구와 부주석 김규식을 비롯한 요인들이 제1진으로 환국하였고,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과 외무부장 조소앙 등 국무위원들은 12월 2일 제2진으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제2진이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인 1945년 12월 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두 경교장에 모였다. 이 모임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도 참석하였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주미대사인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자격이었다. 경교장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가진 모임은 국무회의였다. 당시 《자유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이를 「全閣僚一堂에 會合, 昨日還國後 最初の 國務會議」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임시정부가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후에도 임시정부 요인들은 경교장에서 여러차례 국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실은 당시 여러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뿐만 아

나라 경교장 복원을 담당한 서울시 직원들이 미국의 《LIFE》라는 잡지에서 경교장에서 활동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을 새롭게 찾아내기도 하였다.

경교장 복원이 갖는 의미의 하나는 임시정부가 활동하며 청사로 사용하였던 임시정부 청사 복원의 대미를 장식하였다는 점이다. 경교장이 복원되면서 임시정부가 30여년 동안 활동하며 청사로 사용하였던 건물이 모두 복원되었다. 중국의 상해 → 항주 → 장사 → 유주 → 중경에 이어 국내의 청사인 경교장까지 복원한 것이다. 경교장을 복원하면서 중국과 국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가 모두 복원되었다.

## 2.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역사 유적

경교장 복원이 갖는 중요한 의의가 또 하나 있다. 경교장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숙소이기도 하고, 또 임시정부의 청사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경교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수립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 바로 경교장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실제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08년에 정부가 주도하여 ‘건국6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를 비롯하여 국민들 상당수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교장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현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1948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한국민족은 4,300여년의 오랜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다. 오랜 역사를 유지해오면서 수많은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가 망하면 또다시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나라를 세울 때마다 이름이 달랐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 나라 이름이 서로 달랐다. 한국민족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처음 세운 것은 1919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정부는 ‘임시정부’라는 말이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수립한 것이 현 대한민국 정부이다. 경교장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한국민족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가진 나라를 처음 세운 것은 1919년 4월 11일이다. 한국민족은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그러다 1919년 3월 1일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고 하며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 한국민족은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그 ‘독



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었고, 그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임시정부이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과정이 임시의정원 기록으로 남아 있다. 독립을 선언한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이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상해에 모였다. 이들은 먼저 요즈음 국회와 같은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결정한 것은 국호였다. 국호는 신석우의 제청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고 내무·외무 등의 행정부서를 두기로 한 정부의 관제(官制)를, 세 번째는 국무총리와 각부의 총장 등 정부의 각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이란 이름의 헌법을 제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우리는 현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 체제에 살고 있다. 한국민족의 역사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민주공화제를 수립한 것은 언제일까?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부터이다.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헌법(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였다. 한국민족은 수천년 동안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한국민족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민족사의 대전환이었다. 우리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 체제에 살게 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흔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가 해방과 더불어 끝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경교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가 중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 되었음을 말해준다. 임시정부는 국내로 환국할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들어 오지 못하고 '개인자격'으로 들어왔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합국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임시정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일본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에 대한 이해관계, 즉 연합국 자신의 국가이익 때문이었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들어 왔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석 김구는 “내가 왔으니 정부도 왔오”라고 하였고, 선전부장 엄항섭은 “대외적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자격이겠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자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임시정부 당사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환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임시정부의 환국을 환영하였다. 여러 신문들이 앞다투어 임시정부가 환국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봉영회'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환영회' 등을 개최하였다.

환국 후 임시정부는 정부로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일제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다음날인 1945년 9월 3일 국내에 들어가 추진할 당면정책(當面政策)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 핵심은 국내에 들어가 과도정권(過渡政權)을 수립하고, 수립된 과도정권에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인계한다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국내에 들어와 과도정권을 수립할 때까지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내무부 산하에 행정연구위원회와 정치공작대를 설치하여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주도하면서 1945년 12월 31일 임시정부가 정부로 역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자포고’ 제1호와 제2호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미군정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자 임시의정원을 비상국민회의로 개편하였고, 이어 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꾸어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좌우의 극렬한 대립, 신탁통치 문제, 단독정부 수립 등 국내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947년 4월 국민의회 주도하에 주석 이승만 부주석 김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렇지만 이승만이 취임하지 않음으로서 과도정권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된 것인지, 즉 정부 수립의 근거를 천명하였다.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와 똑같은 연호를 사용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1일 《官報》 제1호를 발행하였다. 여기에 발행연도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란 연호는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쓴 것이고,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했다. 임시정부에서는 서기 연호를 안쓰고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사용하였고, 1945년을 ‘대한민국 27년’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도 임시정부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연호는 국가가 바뀌면 다르게 쓴다. 같은 국가에서도 황제가 바뀌면 새로운 연호를 사용한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하면서 ‘광무(光武)’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종이 강제퇴위 당하고 순종이 황제에 즉위하자 ‘융희(隆熙)’라는 새로운 연호를 썼다. 연호는 같은 국가에서도 황제만 바뀌어도 다르게 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와 똑같은 연호를 사용하였고, 1919년부터 계산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다. 이해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임시정부는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경교장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배어 있다.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담고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사유적이 아닐 수 없다.